

기획

“집은 사람이 사는 곳…사람 냄새 풍기는 집이 좋은 집”

2015 서울시 건축상 대상 ‘도천 라일락집’

정혜빈 기자 hb0204@khu.ac.kr

#. 지난달 25일 서울시는 ‘2015 서울시 건축상’에서 우리학교 정재현(건축학) 교수가 출품한 ‘도천 라일락집’이 대상 수상작으로 선정됐다고 밝혔다. ‘서울시 건축상’은 건축의 공공적 가치를 구현하며 삶의 질을 높인 우수한 건축물을 장려하기 위해 서울시에서 수여하는 상으로, 올해로 33회째를 맞는다. 우리신문은 정 교수를 만나 ‘도천 라일락집’에 대한 자세한 이야기를 들어보았다.

우리학교 정재현 교수가 설계한 ‘도천 라일락집’은 서울특별시 종로구 창경궁로 27길 60에 위치한 단독주택이다. ‘도천 라일락집’이 위치해있던 기존 단독주택은 원래 어수선한 다세대 주택 사이에 70년대에 지어진 오래된 건물이 있던 곳이다. ‘도천 라일락집’의 설계를 정 교수에게 의뢰했던 건축주는 정 교수와 고등학교 3학년 친구였던 인연으로 부탁했다고 한다. 이 집의 터는 우리나라 근대 초기 서양화의 개척자 도상봉 선생이 1932년부터 자리 잡고 활동한 공간이다. 더불어 건축주에게는 4대째 생활의 터전이 되어 준 공간이다. 부동산 시세가 오르내림에 따라 집을 옮기는 가정도 많지만 건축주는 정 교수에게 이 장소가 지닌 의미를 살려 도상봉 선생 기념관을 겸

한 가정집을 지어주기를 부탁했다.

‘도천 라일락’이라는 집의 이름 중 ‘도천’은 도상봉 선생의 호이고 ‘라일락’은 도상봉 선생이 즐겨 그리던 그림이다. 정 교수는 “도상봉 선생이 이 집에 거주했을 당시 굉장히 큰 라일락 나무가 있었다고 들었다” 라며 “도상봉 선생이 라일락을 많이 그렸던 이유는 라일락나무가 화려하지는 않지만 단아하면서 주변과 잘 어우러지는 모습 때문이지 않았을까 싶다”라고 말했다. 정 교수는 이 집이 라일락처럼 드러나기보다는 차분하게 원래 그 자리에 있었던 것처럼 여러 풍경의 한 모습으로 자리 잡기를 원했다.

한옥을 닮은 ‘도천 라일락집’

주변과 조화까지 생각하다

그는 ‘도천 라일락집’이 동네에 오래된 벽돌집 사이에서 이질적이지 않도록 벽돌을 깨서 사용하거나 벽돌 쌓는 방법을 달리 하는 등 다양하게 표현해 군데군데마다 색이 조금씩 다르게 보일 수 있도록 했다. 또 주변과 어우러지게 하기 위해 근교에 있는 성균관 기와 단청에서 붉은 색을 따 벽돌의 색을 정했다. 정 교수는 “개인의 집이어도 건물은 공공성을 띠고 있다고 생각한다”라며 “도시에서 같이 사는 사회가 된 만큼 건물 하나하나 보다는 건물과 주변의 조화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도천 라일락집’은 ‘ㄷ’자 구조로 마당을 품고 있다. ‘ㄷ’자 한옥동선이 안마당을 끼고 돌며 마당을 향해 열려 있어 편안하게 자연과 만날 수 있다. 자연을 향해 열려 있고, 외부에 대해서는 보호된 구조다. 정 교수는 “우리 주변에는 서양형식의 집이 많은 것이 현실이지만 정작 우리나라에는 우리나라에 맞는 집

이 지어져야 한다”며 “우리나라는 4계절이 수시로 변하는 만큼 자연에 대해 자각하면서 살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러한 생각을 바탕으로



정 교수는 ‘도천 라일락집’을 ‘ㄷ’자 구조에 맞추어 마당 쪽으로 난 창을 통해서 따사로운 햇빛이 가득 들어오는 밝은 집을 만들고, 마주보고 있는 창을 통해 서로 소통할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었다

그는 아파트와 같이 차단되어 있는 집과 달리, 생활 속에서 계절의 변화를 느낄 수 있는 집을 설계했다. ‘ㄷ’자 구조에 맞추어 마당 쪽으로 난 창을 통해서 따사로운 햇빛이 가득 들어오는 밝은 집을 만들고, 마주보고 있는 창을 통해 서로 소통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었다.

화실 터는 우리나라 사람들이 서양화에 대해 무지했을 시절 도상봉 선생이 이곳에 서 학생들을 가르치고 당대 많은 화가들과 함께 우리 문화재의 가치나 서양화에 대한 이해 등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던 아지트와 같은 장소였다고 한다. 정 교수는 도상봉 선생 화실 터에 작은 기념관을 지으며 행인들이 봤을 때 오브제처럼 느낄 수 있도록 설계했다. 본관에는 회색 벽돌을 사용하고 기념관은 붉은색 벽돌을 사용해 눈에 뛸 수 있는 상징물로 만들었다.

정 교수는 ‘도천 라일락집’을 지으며 건축주에 대해 고마움을 표했다. 그는 “좋은 집이 만들어지기 위해서는 좋은 건축주가 중요하다”며 “건축가는 열정을 먹고 사는 직

업인만큼 건축가의 열정을 극대화시켜 줄 수 있는 건축주가 필요하다”고 했다. 그는 인터뷰 도중 말을 멈추고 갑자기 책상 위로 작은 책자를 기자에게 보여주었다. 그 책자는 다른 아닌 건축주가 시공과정을 사진과 자신의 그림으로 담아낸 책자였다. 책자에는 설계 과정부터 시공과정에 이르기까지 건축주와 설계자가 끊임없이 소통하며 같이 지어나가는 모습이 담겨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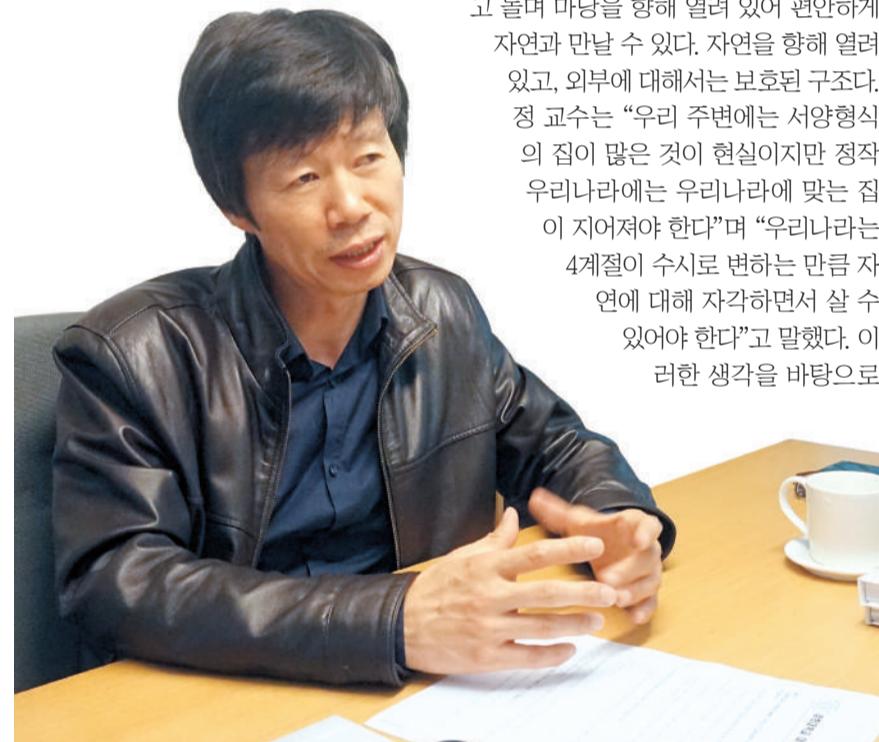
이례적인 일반주택 건축 대상

건축주와 건축가, 소통이 만든 결과

그는 “건축주가 자신을 믿고 따라 준 덕분에 이렇게 멋진 ‘도천 라일락집’을 지을 수 있었다”며 건축주에 대한 고마움을 전했다. 정 교수는 ‘서울시 건축상’에 ‘도천 라일락집’을 출품하며 “일반적으로 설계자와 건축주가 끊임없이 소통하며 같이 지어나가는 모습이 담겨있었다.

마지막으로 그는 ‘라일락집’에서 행복하게 살기라는 제목의 책자를 넘기며 “‘도천 라일락집’은 나에게 너무도 행복한 작업이었다”고 평했다. 그 책자는 집이 지어진 후에 건축주의 가족이 생활하는 모습이 사진과 건축주의 그림으로 담겨있었다.

책자 속 한 페이지에는 건축주와 건축주의 아버지가 편안한 웃자립으로 마당에 나와 있는 사진과 함께 ‘아버님이 ‘이 집 참 좋다’라고 말하셨다’는 문구가 눈에 띠었다. ‘집에 있는데도 집에 가고 싶을 거야’라는 유행가의 가사가 그 어느 때보다도 많은 사람들에게 공감 받는 지금이다. 바쁜 일상에 치여 마음의 여유가 없는 우리들에게 ‘도천 라일락집’은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하는 건축물이다.



2015학년도 2학기 수시 강의평가 시행안내

2015학년도 2학기 수시 강의평가 시행을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수업의 질을 높이고 학업만족도를 향상시키기 위해 학생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 바랍니다. 수시 평가는 평가문형을 별도로 두지 않으며, 수업운영에 대한 전반적인 의견 또는 요청사항을 개방형으로 기술하고 저장을 클릭해주세요.

* 수시 강의평가는 인적사항이 교강사 조회화면에 표시되지 않으며, 교강사에 의해 수업진행 청과용으로만 활용됨.
● 수시 강의평가 진행기간 : 2015. 10. 05(월) 10:00 ~ 11. 27(금) 17:00 (8주)

● 진행절차 : 종합정보시스템 → 수업/성적/상담 → 강의평가 → 수강과목 확인 후 강의평가(수시) 선택



● 입학면허 설정

가. 1번 ‘강좌내역을 확인’
나. 2번 ‘평가문형’ ‘수업운영에 대한 의견 또는 요청사항’을 개방형으로 기술하고 저장을 클릭

다. 3번 ‘평가내역 확인’ : 본인이 일자별로 올린 내역을 확인할 수 있으며, 교강사 확인여부에 따라



● 평가내역 수정

가. 수시 평가내용의 수정은 디딤 고/교사 확인 전에만 가능함
나. 평가면역에서 본인이 작성한 내역을 클릭
다. 편집창이 뜨면서 작성내용을 확인할 수 있으며, 본문 직접 수정
라. 수정완료 후 수정버튼을 클릭하여 저장하고 청탁기를 클릭하여 이전화면으로 돌아감



● 참조 및 유의사항
가. 수시 평가는 강좌당 주 2회까지(총 16회) 의견개진이 가능합니다.
나. 본 수시 평가는 평가자의 인적사항이 교강사에게 공개되지 않습니다.
다. 교강사 확인 전에는 본인이 평가한 내역을 삭제할 수 있으나, 교강사 확인 후에는 삭제가 불가능합니다.

교무처 학사지원과

2015년도 국제캠퍼스 대학직장예비군 보충훈련 공고

2015년도 국제캠퍼스 대학직장예비군 보충훈련에 대해 안내하오니 대상자는 훈련에 적극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 훈련대상 : 2015년 1학기 기본교육 훈련(8시간) 불참자, 2학기 복학생으로 15년 훈련 불참자 전원

● 훈련일자

훈련일자	훈련대상	시간
10월 28(수)	● 공과대학 ● 외국어대학 ● 국제대학 / 국제대학 ● 체육대학	09:00 ~
10월 30(금)	● 국제경영대학 / 국제대학 ● 예술디자인대학 ● 전자정보대학 ● 체육대학 ● 일반 / 전문 / 특수대학원 ● 24시간 대상자 전원(방방곡곡 6시간 이하자)	

● 훈련장소 : 용인시 예비군훈련장(용인시 차인구 운학동 물동로 87)

● 학교 지원차량 : 학교정문 출발(7:50분) → 용인시 예비군 훈련장 도착(8:50분)

* 강남역 지역 차량 배차는 없음

● 유의사항

가. 훈련 기간 중 지역 예비군부대에서 1차 보충훈련부터 무단불참한 훈련은 복학 후에도 보충훈련 부과 ※ 보충훈련시간이 방침보류시간(8시간) 초과시는 보충훈련시간을 적용하고, 미달사는 방침보류시간(8시간)을 적용

나. 훈련일자 변경은 불가하며 개인적인 사정으로 학교 훈련일에 참가가 어려운 학생은 예비군 훈련페이지 (<http://www.yebigun.mil.kr>)에서 휴일 또는 전국단위 훈련을 신청·참가하여 훈련인수 가능

다. 개인 사물보관함에는 분실 우려가 있으나 귀중품사례, 금전, 반지 등은 보관하지 말 것분실시 개인 책임을 명심할 것

라. 대상자 명부는 학과 사무실이나 학교 홈페이지, 부속기관 공지사항에서 확인 요망(훈련 3주전 공지) 미. 예비군 복장(전투모, 전투화, 요대, 고무링)을 규정대로 착용을 것(미착용시 입소 불가)

바. 훈련 입소 시 음주증명서 발급되면 입소 불가하오니 훈련 전 음주행위 삼가 것

사. 신분증(학생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미 차损자는 입소불가 / 신고불참 처리, 09:30~입소불가 / 무단불참 처리

자. 무단불참으로 인한 고발 및 벌금형 등의 불이익처분에 대하여는 개인 책임임에 유념

※ 보충훈련 불참자는 추후 훈련 부여시 차량지원 없이 개별적으로 입소하여야 하는 불편함을 감수 해야 한다는 사실을 명심하고 금번 보충훈련시 전원훈련 참석 요망

● 기타

가. 기타 문의사항은 예비군연대본부(학생회관 2층 219호, ☎ 02-3265-9)로 문의비 바랍니다.

나. 정확한 정보제공을 위해 전화 / 휴대폰 번호가 변경된 예비군은 종합정보시스템 개인정보에서 수정

요망

경희대학교 국제캠퍼스 직장예비군 연대장

2015학년도 천문대 공개 관측회 개최 안내

2015학년도 천문대 공개 관측회를 다음과 같이 개최할 예정이오니 구성원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 일시 : 2015. 10. 28(수) 19:00 ~ 22:00

● 장소 : 국제캠퍼스 천문대

● 대상 : 경희대학교 전 구성원 및 가족, 일반인

● 주최 : 천문대

● 주관 : 천문대 및 우주과학과 학생회

● 행사 내용

시간	견학		관측	천체투영	영상물	강연
	주망원경 견학	초신성 이공의성 지상국 견학				
19:00~22:00	1회 20분 총 6회 진행	1회 20분 총 6회 진행	자유관측	1회 20분 총 6회 진행	4회 상영	퀴즈로 풀어보는 우주이야기 총 3회 진행

* 문의 : 031-201-2470

* 협조 사항 : 공개관측회 행사 관계로 천문대 주차장내에 주차는 불가하오니 많은 양해 바랍니다.

경희대학교 천문대